

##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도미엔(DO THANH THAO MIEN)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베트남전쟁이다. 또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남한(대한민국)과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은 각각 수교를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시기 남한과 남베트남, 북한과 북베트남은 각각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사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반도와 베트남의 기본적인 연관성은 ① 북한·북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② 남한·남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남한의 남베트남 파병 ③ 베트남전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와 베트남의 연관성을 통괄하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각의 측면에서 분석한 개별 연구들이 있으나 이들 역시 베트남 자료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50년대 · 60년대 · 70년대로 나누어 남북한·남북베트남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베트남 전쟁과 해당 시기 남북한의 내부 정치 변화 및 대북·대남정책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다국적 사료들을 이용·분석하는 방식(Multi Archives Research)이다. 즉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당시의 베트남자료, 한국의 자료,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의 자료, 북한 및 북한외교 관련 동구권 외교문서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기 북한·북베트남, 남한·남베트남의 관계를 통괄하는 첫 연구로써, 북한·북베트남과 남한·남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사실들을 각각 규명하였으며 한반도·베트남 연결고리의 전체적 실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 동안 기존의 연구들이 베트남전쟁의 냉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북한이 각각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북베트남과 남한·남베트남의 관계를 자국의 정치 상황과 남북관계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남북한·남북베트남 관계가 제일 긴밀해졌던 시기인 1960 년대에 반미·반공공동의식이라는 한반도·베트남 연결고리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는데, 이는 남북한의 지도자가 각자의 체제 유지 차원에서 모두 베트남 전쟁의 영향, 그리고 남북베트남과의 공동유대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한 점은

남북한·남북베트남 관계는 평범한 반공우방국, 반미공전선의 유대관계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각각 지도부가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계산을 적용해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점이였다.

도미엔 박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하노이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 전쟁 시기(1954~1975 년)를 중심으로」, 「1960 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 새로 발굴한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 「1975 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현재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소재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관련 자료 조사·해제>,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수립·전개 과정과 호찌민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일시: 2020 년 6 월 9 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 호)**